

‘·’音의 混錯表記에 關한 研究

— 15·6C 文獻을 中心으로 —

李 宇 榮

〈目 次〉

- | | |
|-----------|------------|
| I 序 論 | 3. ·音의 性格 |
| II 研究의 實際 | 4. ·音의 消失期 |
| 1. 資料의 提示 | III 結 論 |
| 2. 資料의 解釋 | |

I 序 論

‘·’音에 關한 研究는 小倉進平·河野六郎·朴勝彬·崔鉉培·李能和·李崇寧 諸氏 등에 依하여 比較的 자세히 進行되어 왔다. 주로 濟州方言을 中心으로 試圖된 一連의 研究들은 音價, 消失期, 音의 變化 등에 對하여 言及한 論文이나 著書들이다.

既往의 論文이나 著書들이 音韻論의 理論을 바탕으로 한 玉稿들이었다. 本稿에서는 특히 ‘·’音의 混錯表記를 中心으로 한 文獻資料를 바탕으로 ‘·’音의 性格 및 變化, 들깨 音節 以下에서 의 ‘·’音의 消失期 등에 關하여 몇 가지 새로운 事實을 밝혀 보려 한다.

사실 이제까지의 研究에서 ‘·’音에 關한 한 몇몇 碩學들이 至大한 關心을 가져 왔기 때문에 神聖不可侵의 境地에 까지 이른 分野처럼 여겨져 새로운 學徒들이 감히 勇氣를 내지 못한, 이미 더 以上의 研究對象이 되지 못한 領域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先行研究物이 完璧하고 學界에 認定을 받고 있다는 데 더 큰 根據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筆者도 그런 点에서는 是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다. 단지 이 試論에서는 文獻資料를 다른 角度에서 提示함으로 해서 몇 가지 새로운 事實의 發見을 통해 既往의 研究物에 對한 補完 내지는 部分的 修正을 해보려는 것이다.

本 研究에서 다루어진 資料는 15C 文獻으로 龍飛御天歌, 訓民正音,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蒙山法語, 救急簡易方, 初刊杜詩診解 등이며, 16·17C 文獻도 南廣祐 教授 編著

補訂 古語辭典에서 間接 引用하여 廣範圍하게 다루었다.

Ⅱ 研究의 實際

1. 資料의 提示

‘·’音이 첫째 音節에서는 卜로, 둘째 音節 以下에서는 主로 一로 바뀌었다¹⁾는 것은 通說처럼 되어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筆者의 調査로는 그와 같은 斷定은 그릇된 것이며 修正이 不可避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音節에서 卜로 바뀌었다는 지적은 異論의 餘地가 없다. 하지만 둘째 音節 以下의 境遇는 좀 사정이 다르다. 用言의 境遇는 주로 一로 바뀐 것이 事實이지만 體言의 境遇에는 주로 卜로 바뀌었다는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用言과 體言 그리고 修飾言까지를 包含해서 생각하면 一보다는 卜로 바뀐 用例가 더 많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물론 이 統計가 얼마나 正確한 것이냐의 問題, 用例를 偏見없이 提示했느냐의 問題 등 解析 如何에 따라서는 異見이 可能할 수도 있겠으나 筆者는 애당초 ‘·’音 使用의 語彙 用例를 모으는 가운데 얻어진 副産物이므로 先入見은 排除되었음을 밝혀 둔다.

이 資料를 整理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點에 특히 留意하였다.

첫째, 完全 死語가 되어 그 자취를 전혀 찾기 어려운 것은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둘째, 單純語幹과 비슷한 形態交替를 가지는 派生語幹이나 複合語幹의 異形態에 對하여는 原則적으로 基本的인 것만을 취했다.

셋째, 複合語나 派生語는 單語 次元에서 그 意味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重複을 피하는 선에서 選定했다.

넷째, 漢字語의 境遇도 對象으로 삼았다.

다섯째, 混錯表記라 하더라도 文献에 나타나는 것은 選定 對象으로 삼았다(주로 16C 初期 文献까지를 중심으로).

여섯째, 語尾나 助詞와 같은 虛辭는 原則적으로 對象에서 除外하였다(그 변화가 單調롭고 明瞭하므로).

일곱째, 語根이 같은 類似 派生語에서는 가급적 하나만을 취하는 것을 原則으로 했다.

여덟째, 單語 排列과 語彙 選擇을 主로 南廣祐 ‘古語辭典’²⁾과 李熙昇 ‘국어대사전’³⁾에 따

1) 李崇寧: 國語音韻論研究 第一集 「·」音攷, 乙酉文化社, 1955.

2) 南廣祐: 補訂古語辭典, 一潮閣, 1977.

3) 李熙昇: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0.

랐다.

아홉째, ‘ㅁ물다 > ㅁ물다 > 가물다’와 같은 變化를 보인 單語는 (→ㅌ)로 表示하고 ‘一’ 變化로 처리하였다.

열째, ‘움즈기다 > 움죽이다 > 움적이다’와 같은 變化를 보인 單語는 (→ㅣ)로 表示하고 ‘一’ 變化로 처리했다.

열한째, 單語의 뜻은, 밑말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어 풀이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유사한 語彙로 代替시켜 놓았다.

(1) ㄱ-ㅋ音과의 結合

- 고 키 양 : 고갱이 [ㄱ] (救急簡易方1:42)
- 굽 ㅁ리기 : 굽흔뿌리기 [ㄱ] (初朴通事上63)
- 루 ㅁ : 누각 [ㄱ] (訓蒙上2)
- 물 ㅁ 지 : 모꼬지 [ㄱ] (翻譯小學上7)
- 물 ㅁ : 물가 [ㄱ] (初杜解7:22)
- 밧 ㅁ 락 : 밧가락 [ㄱ] (初朴通事上14)
- 손 ㅁ 락 : 손가락 [ㄱ] (東國新續三綱)
- 쇼 로 키 : 솔개 [ㄱ] (古時調)
- 스 ㅁ 불 : 시골 [ㅇ] (龍歌35章)
- 빨 기 : 쓸개 [ㄱ] (倭解上18)
- 잇 ㅁ 장 : 이까지 [ㄱ] [月釋2:12]
- 최식 ㅁ 음 : 물감 [ㄱ] (訓蒙中30)
- 향 가 시 : 향가새 [ㄱ] (方藥14)

〈体言에서〉

- ㅁ ㅁ 로 디 다 : 거꾸러지다 [ㅌ] (杜解1:6)
- 깃 ㅁ 다 : 깨닫다 [ㄱ] (類合下37)
- 눈 ㅁ 다 : 눈감다 [ㄱ] (楞解9:115)
- 눈 ㅁ 죽 ㅎ 다 : [ㄱ] (重杜解2:63)
- 등 기 다 : 당기다 [→ㅇ] (楞解5:24)
- 맞 ㅁ 다 : 대답하다 [ㄱ] (楞解4:125)
- 므르 ㅁ 다 : 곱게갈다 [ㄱ] (救急簡易方)
- 땡 ㅁ 다 : 만들다 [一] (訓正註解)
- 섯 ㅁ 다 : 섞갈리다 [ㄱ] (杜解13:14)
- 암 ㅁ 다 : 앗물다 [一] (月釋1:27)
- 일 ㅁ 다 : 일권다 [ㄱ] (龍歌29章)
- 좁 ㅁ 다 : 잠그다 [一] (訓蒙下3)
- 굽 ㅁ ㅎ 다 : 갑갑하다 [ㄱ] (痘瘡集要上57)

- ㄹ ㄹ ㅎ 다 : 깨끗하다 [一] (月釋8:8)
 ㄱ ㄱ ㄷ 다 : 깨끗하다 [一] (語錄12)
 ㅂ ㅂ ㅂ ㄹ ㅎ 다 : 환하다 [一] (杜解1:15)
 ㅎ ㄹ ㄹ ㄷ 다 : 한결같다 [ㄱ ㄷ] (內訓3:21)

〈用言에서〉

- ㅁ ㅁ ㅎ 이 : 겹겹이 [ㄱ] (南明上76)
 ㄹ ㅁ ㄹ 오 : 거꾸로 [ㄷ] (杜解24)
 ㅍ ㅁ ㄹ 이 : 급자기 [ㄷ] (內訓1:7)
 ㅎ ㄹ ㅁ ㄹ 이 : 한결같이 [ㄱ ㄷ] (杜解2:32)
 ㅎ ㄹ ㅁ ㅁ 장 : 실컷 [ㄱ] (古時調)

〈修飾言에서〉

(2) ㄴ 음과의 結合

- ㅁ ㄴ ㄴ ㅎ : 그늘 [一] (初杜解15:9)
 ㄱ ㄴ ㄴ ㅎ : 칼날 [ㄷ] (杜解3:10)
 ㄴ ㄱ ㄴ ㅎ : 나그네 [ㄱ] (老解下54)
 ㄴ ㅂ ㄴ ㅎ 이 : 높낮이 [ㄷ] (楞解5:69)
 ㅁ ㄴ ㄴ ㅎ : 마늘 [一] (訓蒙上13)
 ㅁ ㄴ ㄴ ㄹ 이 : 메나라 [ㄷ] (漢清文鑑6:61)
 ㅁ ㄴ ㄴ ㅎ : 바늘 [一] (龍歌52章)
 ㅁ ㄴ ㄴ ㅎ : 오늘 [一] (龍歌16章)
 ㅎ ㄴ ㄴ ㅎ : 참나물 [ㄷ] (物譜上篇)
 ㅎ ㄴ ㄴ ㅎ : 하늘 [一] (龍歌4章)

〈体言에서〉

- ㄱ ㄴ ㄴ ㄹ 이 다 : 거느리다 [一] (星山別曲)
 ㄱ ㄴ ㄴ ㄷ 다 : 쥐는다 [一] (月釋1:21)
 ㅂ ㄴ ㄴ ㄷ 다 : 베를 날다 [ㄷ] (訓蒙下19)
 ㅅ ㄴ ㄴ ㄷ 다 : 살아나다 [ㄷ] (華解上31)
 ㅅ ㄴ ㄴ ㄹ 이 다 : 오르내리다 [ㄷ] (初杜解7:2)
 ㅅ ㄴ ㄴ ㄷ 다 : 거급 그대로 잇달아 하다 [ㄷ] (杜解10:28)
 ㅎ ㄴ ㄴ ㄷ 다 : 후늘다 [一] (金經三4:12)
 ㄱ ㄴ ㄴ ㄷ 다 : 가늘다 [一] (楞解3:68)
 ㅅ ㄴ ㄴ ㅎ 다 : 서늘하다 [一] (初杜解9:5)
 ㅅ ㄴ ㄴ ㅎ 다 : 자늑하다 [一] (內訓1:11)

〈用言에서〉

- 어 ㄴ ㄴ : 어느 [一] (龍歌87章)

〈修飾言에서〉

(3) ㄷ-ㅌ音과의 結合

- 가 온 덕 : 가운데 [ㄱ] (訓正註解)
 고 돌 개 : 고들개 [一] (訓蒙中27)
 고 돌 : 곧음 [一] (重杜解2:59)
 고덕머리 : 대머리 [ㅌ] (譯解上61)
 곱 돌 의 : 곱달래 [ㅌ] (訓蒙上9)
 궁덕(弓袋) : 궁대 [ㅌ] (訓蒙中29)
 나 돌 : 세월 [ㅌ] (杜解2:33)
 낙 덕 : 낙숫대 [ㅌ] (陋巷詞)
 둥덕도개 : 筋筒 [ㅌ] (老解下:29)
 덩검드리 : 징검다리 [ㅌ] (譯語上14)
 ㅎ 덕 : 마디 [→ ㅅ] (月釋2:2)
 막 덕 : 막대기 [ㅌ] (古時調)
 ㅎ 뚝 : 매듭 [一] (月釋21:44)
 머릿덕골 : 해골 [ㅌ] (訓蒙上28)
 ㅎ 덕 : 바디 [→ ㅅ] (訓蒙中18)
 ㅎ 드 리 : 배다리 [ㅌ] (訓蒙中25)
 비 돌 기 : 비둘기 [→ ㅌ] (朴解上5)
 사 드 리 : 사다리 [ㅌ] (譯語上14)
 사 드 새 : 사다새 [ㅌ] (四解上25)
 산 교 덕 : 상고대 [ㅌ] (譯語上2)
 ㅎ 뚝 : 뚝부기 [ㅌ] (初杜解7:2)
 산 덕 : 산디눔음 [→ ㅅ] (譯語上23)
 ㅎ 돌 : 선달 [ㅌ] (初杜解10:45)
 수 뚝 : 수탑 [ㅌ] (救急方上1:60)
 아 돌 : 아들 [一] (龍歌52章)
 아 모 ㅎ : 아무테 [ㅌ] (月釋2:25)
 어 덕 : 어더 [→ ㅅ] (孟解)
 여 드 래 : 여드래 [一] (月釋2:35)
 여 뚝 : 여덥 [ㅌ] (老解上32)
 존 덕 : 진대 [ㅌ] (井邑詞)
 진 돌 의 : 진달래 [ㅌ] (訓蒙上7)
 청 덕 : 청대 [ㅌ] (訓蒙上9)
 푸 덕 접 : 푸대접 [ㅌ] (古時調)
 하늘드래 : 하늘타리 [ㅌ] (四解下67)
 ㅎ 돌 : 일월 [ㅌ] (月釋1:42)

〈体言에서〉

- 카 두 다 : 가두다 [丁] (重杜解3:44)
 권 더 다 : 권더다 [→○] (初杜解6:16)
 기 툃 다 : 끼치다 [丁] (杜解22)
 나 들 다 : 내달다 [丁] (救急簡易方)
 나투리라 : 나타나리라 [丁] (蒙法8)
 씨 들 다 : 깨닫다 [丁] (釋譜6:20)
 낫 들 다 : 나아가 달리다 [丁] (月釋11:20)
 네발투다 : 네발 가지다 [丁] (月釋2:18)
 녀 툃 니다 : 다니다 [丁] (杜解7:27)
 다 들 다 : 다다르다 [丁] (月釋18)
 다 들 다 : 다듬다 [一] (月釋序21)
 더 더 다 : 더더다 [→○] (重杜解7:14)
 드 더 다 : 더더다 [→○] (老解下14)
 막 투 다 : 멀다(마더다) [→○] (初朴通事上54)
 문 들 다 : 만들다 [一] (家例解1:4)
 문동기다 : 잡아당기다 [丁] (月釋序3)
 맛 들 다 : 맛따뜨리다 [丁] (蒙法29)
 바 투 다 : 발이다 [→丁] (訓蒙下14)
 벅 투 다 : 받아치다 [丁] (法華2:118)
 셋 들 다 : 뒤섞여 달리다 [丁] (法華2:107)
 숨 투 다 : 숨쉬다 [丁] (月釋1:11)
 쓰다들다 : 쓰다듬다 [一] (內訓2:35)
 시름투외다 : 시름되다 [○] (圓覺序13)
 어울투다 : 어울타다 [丁] (朴解上24)
 읊 툃 니다 : 읊어나다 [丁] (杜解9:35)
 지출투다 : 놀러타다 [丁] (古時調)
 치 들 다 : 치닫다 [丁] (古時調)
 헤 들 다 : 헤매어 다니다 [丁] (杜解16:55)
 ㄹ 투 톡 다 : 가득하다 [一] (龍歌41章)
 고돌푼다 : 고달프다 [丁] (杜解7:18)
 바드랍다 : 위태롭다 [一] (月釋2:56)
 벅 투 톡 다 : 팽뚱하다 [一] (火砲解2)
 보드랍다 : 보드럽다 [一] (月釋8:13)
 반쪽반쪽투다 : 반쪽반쪽하다 [丁] (月釋8:29)
 아 투 톡 다 : 아득하다 [一] (訓蒙下1)
 애 들 다 : 애답다 [丁] (古時調)

〈用言에서〉

- 가 ㄷ 기 : 가득히 [一] (月釋2: 18)
 구 ㅌ 여 : 구태여 [H] (五倫2: 12)
 돈 ㄷ : 단단히 [卜] (救荒辟漫)
 ㄷ ㄷ 이 : 따듯이 [一] (救急簡易方)
 도 ㅌ 이 : 도타이 [卜] (初內訓1: 18)
 무 ㄷ 무 ㄷ : 이따금 [→○] (重杜解2: 23)
 반 ㅌ 시 : 반드시 [一] (翻譯小學10: 3)
 부 ㄷ : 부디 [→○] (靑丘永言)
 외 ㅌ 로 : 외따로 [卜] (月釋9: 12)
 이리 ㄷ 록 : 이렇도록 [上] (月釋8: 101)
 혼 ㄷ : 한테 [卜] (杜解9: 6)

〈修飾言에서〉

(4) ㄹ音과의 結合

- 가 ㄹ : 갈래 [H] (月釋8: 13)
 가 ㄹ : 갈래 [H] (楞解1: 16)
 마 ㄹ : 가루 [上→下] (圓覺二之二154)
 마 ㄹ : 가로(橫) [上] (杜解1: 32)
 마 ㄹ 비 : 가랑비(細雨) [卜] (月釋1: 36)
 마 ㄹ : 가람 [卜] (龍歌20章)
 마 ㄹ : 갈림길 [[→]] (漢清文鑑)
 거 ㄹ : 걸음 [一] (朴解中48)
 ㅍ ㄹ : ㅍ마루 [上→下] (訓蒙上26)
 그 ㄹ : 그릇 [一] (老解上39)
 기 ㄹ 마 : 길마 [→○] (龍歌58章)
 기 ㄹ : 기름 [一] (釋譜6: 10)
 누 ㄹ : 나무 [上→下] (訓蒙上18)
 마 ㄹ : 마루 [上→下] (類合下51)
 마 ㄹ : 마름 [一] (月釋21: 92)
 마 ㄹ : 마루쇠 [上→下] (初朴通事上15)
 무 ㄹ : 무릎 [一] (朴解中51)
 물 ㄹ : 물갈래 [H] (訓蒙上5)
 벽 ㄹ : 바람벽 [卜] (龍歌2章)
 벽 ㄹ : 바람벽 [卜] (釋譜9: 24)
 불 ㄹ : 불자룻대 [上→下] (救急簡易方1: 76)
 비 ㄹ : 비름 [一] (朴解中34)
 사 ㄹ : 사람 [卜] (龍歌15章)
 본 ㄹ : 본래(固) [卜] (類合下59)

- 사향노르 : 사향노루 [ㄱ→ㄷ] (訓蒙上18)
 소 리 : 소리 [→ㅇ] (杜解1:2)
 시 름 : 시름 [一] (重杜解1:40)
 아 름 : 아람치(私有) [卜] (楞解1:16)
 아 름 : 아람(抱) [一] (朴解下31)
 아 름 발 : 사사발 [卜] (杜解12:18)
 아 름 : 아래(前日) [卜] (月釋2:25)
 여 름 : 여름 [一] (詩解1:7)
 슈 푼 름 : 휘파람 [卜] (倭解上43)
 즈 름 : 자루(柄) [ㄱ→ㄷ] (訓蒙中12)
 죠 리 : 조리 [→ㅇ] (訓蒙中13)
 초 하 름 : 초하루 [ㄱ→ㄷ] (訓蒙上2)
 콧 도 름 : 콧두레 [네] (漢清文鑑14:2)
 하 름 : 하루 [ㄱ→ㄷ] (釋譜6:2)
 허영가림 : 헝가래 [卜] (興夫傳)

〈体言에서〉

- 가르디되다 : 가로지르다 [ㄱ] (重杜解9:32)
 마 르 다 : 가르다 [一] (東國新續三綱)
 마르디르다 : 가로지르다 [ㄱ] (初杜解25:2)
 가르셔다 : 가려셔다 [네] (杜解4:1)
 마르치다 : 가르치다 [一] (龍歌15章)
 마르티다 : 후리치다 [一] (初杜解16:62)
 것 마르죽다 : 까무러치다 [卜] (月釋21:215)
 구 르 다 : 구르다 [一] (武藝圖譜12)
 그 르 다 : 흐르다 [一] (石千31)
 기 르 다 : 기르다 [一] (古時調)
 니 르 다 : 이르다(到) [一] (五倫1:29)
 니 르 다 : 이르다(謂) [一] (龍歌5章)
 니르혀다 : 일으키다 [一] (譯語上18)
 더 르 다 : 찌르다 [一] (杜解21:13)
 마르르다 : 메마르다 [一] (訓蒙下17)
 마 르 다 : 마르다(乾) [一] (蒙法52)
 마 르 다 : 마르다(裁) [一] (訓蒙下19)
 모 르 다 : 모르다 [一] (龍歌13章)
 무 르 다 : 무르다 [一] (老解上17)
 무 르 다 : 무르다(軟) [一] (朴解中48)

- ㅂ ㄹ 다 : 바르다(塗) [一] (楞解5:41)
 브르짓다 : 부르짓다 [一] (東國三綱)
 도 ㄹ 다 : 두르다 [一] (初朴通事上)
 브릅뜨다 : 부릅뜨다 [一] (朴解下19)
 비 ㄹ 다 : 비릇다 [一] (楞解4:32)
 사 ㄹ 잡다 : 사로잡다 [一] (訓蒙下25)
 스 ㄹ 나다 : 살아나다 [一] (華解上31)
 어 ㄹ 먼지다 : 어루만지다 [一] (五倫3:38)
 오 ㄹ 다 : 오르다 [一] (龍歌109章)
 이 ㄹ 다 : 이루다 [一] (釋譜6:22)
 주 ㄹ 다 : 자르다 [一] (救急簡易方目錄3)
 감 ㅍ ㄹ 다 : 감파르다 [一] (月釋2:51)
 겨 ㄹ 롭다 : 한가하다 [一] (月釋7:6)
 그 ㄹ 다 : 그르다 [一] (語錄18)
 노 ㄹ 다 : 노랑다 [一] (月釋1:44)
 다 ㄹ 다 : 다르다 [一] (龍歌24章)
 다투 ㄹ 다 : 다투다 [一] (思美人曲)
 바 ㄹ 다 : 바르다 [一] (月釋序18)
 션 ㄹ 다 : 빠르다 [一] (訓正訂解)
 새 ㄹ 롭다 : 새롭다 [一] (杜解11:2)
 아 ㄹ 롭다 : 아름답다 [一] (釋譜13:9)
 외 ㄹ 롭다 : 외롭다 [一] (釋譜6:5)
 주 ㅅ ㄹ 다 : 중요롭다 [一] (釋譜序4)
 꺾 ㄹ 다 : 꺾랑다 [一] (月釋8:10)

〈用言에서〉

- 가 ㄹ 샤티 : 가라사대 [一] (小解)
 바 ㄹ : 바로 [一] (月釋序18)

〈修飾言에서〉

(5) 口音과의 結合

- 마 ㄹ 물 : 가물 [一] (釋譜9:33)
 갈 ㄹ 미 : 갈매 [一] (農歌月12月)
 꺾 ㄹ 마루 : 꺾마루 [一] (訓蒙上26)
 고 ㄹ 라물 : 고라말 [一] (初朴通事上62)
 누 ㄹ 자기 : 나문재 [一] (靑山別曲)
 나 ㄹ 새 : 남새 [一] (韻譜小學9:103)

- 느 물 : 나물 [→ㄷ] (杜解22:14)
- 다 돈 : 다만 [卜] (二倫3)
- 등 마 릭 : 등마루 [卜] (訓蒙上27)
- 말 비 : 말미 [→○] (釋譜6:15)
- 물 돈 밥 : 물말이 [卜] (訓蒙中20)
- 스 미 : 소매 [卜] (初朴通事上72)
- 잉 무 비 : 앵무배 [卜] (四解下27)
- 전 물 : 저는 말 [卜] (龍歌31章)
- 취 초 미 : 주참외 [上] (目解下37)
- 총이 물 : 총이말 [卜] (初朴通事上62)
- 큰 물 : 뚱 [卜] (救急簡易方目錄3)

〈体言에서〉

- ㅁㅁ리티다 : 까무러치다 [→ㄷ] (痘瘡集要上)
- ㅁ 물 다 : 가물다 [→ㄷ] (內訓2:45)
- 기 숨 리 다 : 기움매다 [卜] (訓蒙下5)
- 나 무 라 다 : 나무라다 [→ㄷ] (月釋21:39)
- 다 맞 혀 다 : 같이하다 [卜] (初杜解19:42)
- 마 마 르 다 : 메마르다 [卜] (訓蒙下17)
- 밀 돈 지 다 : 밀만지다 [卜] (無冤錄135)
- 스 무 초 다 : 사무치다 [→ㄷ] (訓正註解)
- 아 물 다 : 아물다 [→ㄷ] (杜解1:49)
- 어 린 돈 지 다 : 어루만지다 [卜] (五倫3:38)
- 얼 비 다 : 엷매다 [卜] (重杜解11:37)
- 물 겹 물 겹 혀 다 : 환하다 [卜] (杜解1:15)

〈用言에서〉

- ㅁ ㅁ ㄴ 이 : 가만히 [卜] (楞解4:17)
- 스 ㅁ : 사뭇 [→ㄷ] (月釋序18)
- 아 ㅁ 리 : 아무리 [→ㄷ] (訓正註解)
- 즈 ㅁ : 자뭇 [上] (杜解1:17)
- ㅎ ㅁ 며 : 하물며 [→ㄷ] (龍歌121章)

〈修飾言에서〉

(6) ㄴ-고춤과의 結合

- 가 비 : 가위 [○] (樂範·動動)
- 갓 ㅁ 기 : 막 밝을 무렵 [卜] (杜解8:32)
- 고 비 : 굵이 [→○] (杜解1:16)

노 피 : 높이 [→○] (龍歌48章)
 되 꼭 람 : 휘파람 [卜] (重杜解10:35)
 보 비 : 보배 [卜] (龍歌83章)
 선 비 : 선비 [→○] (龍歌80章)
 술 풀 집 : 술파는 집 [卜] (雙花店)
 슈 꼭 름 : 휘파람 [卜] (倭解上43)
 전 꼭 리 : 저는 파리 [卜] (古時調)
 즉 빅 : 치백 [卜] (訓蒙上10)
 측빅낙모 : 측백나무 [卜] (方藥27)
 쿵 꾀 : 콩밭 [卜] (訓蒙上27)
 혼 빌 : 한벌 [卜] (金經下138)
 히브라기 : 해바라기 [卜] (物譜上篇)

〈体言에서〉

감 썰 다 : 감팔다 [卜] (古時調)
 거더버리다 : 건어버리다 [卜] (初杜解9:19)
 나뭇기다 : 나부끼다 [→丁] (杜解12:30)
 다 뵈 다 : 되다 [○] (龍歌98章)
 의혀버리다 : 찢어버리다 [卜] (杜解13:8)
 밤 비 다 : 비비다 [→○] (訓蒙下23)
 가빅얹다 : 가법다 [○] (訓正註解)
 곧 번 다 : 가쁘다(괴롭다) [一] (杜解3:56)
 감꼭르다 : 감파르다 [卜] (月釋2:51)
 고돌꼭다 : 고달프다 [一] (月釋21:55)
 골 꼭 다 : 고프다 [一] (月釋21:55)
 귀 붉 다 : 귀얹다 [卜] (訓蒙28)
 근 썰 다 : 끝이 빨다 [卜] (類合下53)
 날 번 다 : 나쁘다 [一] (釋譜9:5)
 빅빅하다 : 뻑뻑하다 [卜] (重杜解1:14)
 설 피 다 : 설피다 [→○] (初杜解8:42)
 아기비다 : 아기배다 [卜] (類合下16)
 알 꼭 다 : 아프다 [一] (月釋2:22)
 혼풀얹다 : 한팔없다 [卜] (訓蒙下33)

〈用言에서〉

가빅야이 : 가벼이 [○] (杜解25:50)
 구빅구빅 : 구비구비 [→○] (關東別曲)
 흥병사 : 혼자 [○] (龍歌35章)

〈修飾言에서〉

(7) 人-△과의 結合

- 가스나훤 : 계집아이 [卜] (七大15)
 가 슝 : 가슴 [一] (初杜解97)
 가 처 : 가지 [→○] (楞解5:25)
 가 처 련 : 가지연 [→○] (四解下81)
 마 슝 : 감(材料) [○] (法華2:99)
 거 스 : 사당 [卜] (靑丘永言)
 군 스 : 군사 [卜] (訓蒙中2)
 다 스 마 : 다시마 [→] (老解下34)
 다 슷 : 다섯 [ㄱ] (龍歌86章)
 대 바 리 : 뱀싸리 [卜] (訓蒙上10)
 당 스 : 장사(商業) [卜] (類合下17)
 뿔 심 활 : 北泉洞 [卜] (龍歌32章)
 마 슝 : 마을 [一] (初杜解23:11)
 마 슝 : 마음 [一] (龍歌18章)
 말 슝 : 말쌈 [一] (龍歌13章)
 반 스 : 반사 [卜] (類合下20)
 사 슝 : 댓가지 [卜] (訓蒙下22)
 사 슝 : 사슴 [一] (訓正註解)
 스식나모 : 사시나무 [→] (方藥32)
 속 처 : 속새 [卜] (方藥15)
 송 스 : 송사(訟事) [卜] (類合下21)
 심 슝 : 심사(心) [卜] (初朴通事上28)
 아니한스이 : 잠서 [卜] (釋譜6:3)
 아 슝 : 아우 [ㄷ] (月釋10:1)
 여 슷 : 여섯 [ㄱ] (類合上1)
 여 슝 : 여우 [ㄷ] (初杜解8:12)
 오 스 리 : 오소리 [ㄱ] (東醫)
 요 스 이 : 요사이 [卜] (梵音集)
 이 슝 : 이슬 [一] (漢清文鑑)
 죽 슝 : 자위 [ㄷ] (楞解8:7)
 조 발 : 좁쌀 [卜] (杜解1:50)
 초 발 : 참쌀 [卜] (訓蒙上12)
 푸 시 : 풀새 [卜] (古時調)
 향 가 서 : 향가새 [卜] (方藥14)
 회스(回寺) : 친하게 노는 계집 [卜] (中宗實錄19:2)

〈體言에서〉

- 가 시 다 : 가시다 [→○] (月釋1:50)
 마스말다 : 가말다 [→○] (內訓3:48)
 간스ㅎ다 : 간수하다 [ㄷ] (內訓3:48)
 갑 습 다 : 갓삽다 [ㅌ] (月釋9:61)
 거스르다 : 거스르다 [一] (太平廣記1:50)
 공스ㅎ다 : 公事하다 [ㅌ] (月釋9:30)
 다스리다 : 다스리다 [一] (月釋8:90)
 다 시 다 : 지새다 [ㅌ] (時調)
 뷔 슌 다 : 부수다 [ㄷ] (月釋21:219)
 뷔 슌 다(暎) : 부시다 [→○] (訓蒙下1)
 뷔 슌 티다 : 바서뜨리다 [ㄱ] (楞解7:65)
 보스피다 : 보살피다 [ㅌ] (老解上52)
 에워빚다 : 에워싸다 [ㅌ] (五倫2:35)
 입스ㅎ다 : 入絲하다 [ㅌ] (初朴通事上28)
 지달쓰다 : 싸매다 [ㅌ] (老解上41)
 고 소 다 : 고소하다 [ㄴ] (杜解10:9)
 다 소 다 : 따스하다 [一] (類合下50)
 발 쓰 다 : 비싸다 [ㅌ] (初朴通事上61)
 스스름다 : 사사름다 [ㅌ] (小解6:101)
 성가시다 : 성가시다 [→○] (月釋2:57)

〈用言에서〉

- 갓가스로 : 가까스로 [一] (月釋6:5)
 무 소 : 무슨 [一] (關東別曲)
 비 르 습 : 비뚱함 [ㅌ] (小解2:31)
 스 소 로 : 스스로 [一] (五倫2:5)
 아스라히 : 아득히 [ㅌ] (初杜解1:1)

(8) ㅈ-ㅊ音과의 結合

- 마 립 ㅈ : 가리마 [ㅌ] (漢清文鑑)
 감 ㅈ : 감자 [ㅌ] (訓蒙上11)
 계 ㅈ : 겨자 [ㅌ] (訓蒙上14)
 고 ㅈ : 먹고자 [ㅌ] (古時調)
 교ㅈ(嬌子) : 평교자(가마) [ㅌ] (訓蒙中26)
 글 ㅈ ㅈ : 글자획 [ㅌ] (內訓1:24)
 기 ㅈ : 기침 [→ㅌ] (馬解下57)
 녀 ㅈ : 녀자 [ㅌ] (古今俗言)
 눈 ㅈ ㅈ : 눈자위 [ㅌ] (訓蒙上25)

- 님 즈:임자 [卜] (古時調)
- 명 즈:정자 [卜] (訓蒙中5)
- 명 지 신:정재인(呈才人) [卜] (朴通事上5)
- 대 즈:제자 [卜] (訓蒙上34)
- 딤 치:김치 [→○] (訓蒙中22)
- 마 츨:마침 [1] (朴通事中9)
- 모츠라기:메추리 [丁] (杜解20:26)
- 문 지:먼지 [→○] (月釋2:219)
- 므 즈미:물자맥질 [卜] (訓蒙中2)
- 무 즈의:무자위 [卜] (才物譜地譜)
- 바 즈:빠자 [卜] (老解下1)
- 반 즈:반자 [卜] (譯語上19)
- 부 치:부채 [卜] (雅音卷一)
- 불즈룻대: [卜] (救急簡易方)
- 비 즈:피마주 [丁] (初朴通事上9)
- 변 즈:변자 [卜] (初內訓上44)
- 사 즈:사자 [卜] (月印上59)
- 생 동 츨:생동찰(梁) [卜] (訓蒙上12)
- 아 즈미:아주머니 [丁] (龍歌99章)
- 아 츨:아침 [→1] (月釋1:45)
- 안즈방이:안은방이 [一] (方藥19)
- 양 즈:모양 [卜] (釋譜序1)
- 언 지:언제 [卜] (譯語上5)
- 오 비 지:오배자 [卜] (救急簡易方3:1)
- 웅 즈:웅자 [卜] (梵音集)
- 요 즈옴:요즈옴 [一] (重杜解11:2)
- 자 치:자채 [卜] (農家用俗)
- 쥬 견 즈:주전자 [卜] (訓蒙中12)
- 차 즈:외상(借資) [卜] (古時調)
- 창 즈:창자 [卜] (老解下34)
- 코 편 물:코찌진말 [卜] (老解下8)
- 탄 즈:탄자(彈子) [卜] (石千39)
- 팅 즈:팅자 [卜] (四解上18)
- 팔 즈:팔자 [卜] (老解下64)
- 품 즈리:잠자리 [卜] (古時調)
- 풍 치:풍채 [卜] (訓蒙下33)
- 풋 츨:풋잠 [卜] (關東別曲)
- 힐 즈:행주 [丁] 訓蒙下20)

환 ㅈ : 환자(還子) (古時調)
 환 ㅈ 의 : 환자위 [卜] (漢淸文鑑)

〈體言에서〉

뉘웃츠다 : 뉘우치다 [→1] (內訓3:6)
 듣 줍 다 : 듣잡다 [卜] (釋譜6:11)
 막 츄 다 : 마치다 [→1] (龍歌51章)
 막즈르다 : 막지르다 [→1] (杜解1:53)
 문 줍 다 : 문잡다 [卜] (釋譜6:20)
 미 츄 다 : 미치다(及) [→1] (石千7)
 바 츄 다 : 바빠하다 [卜] (初朴通事上10)
 반 줍 다 : 바치다 [卜] (龍歌53章)
 움즈기다 : 움직이다 [→1] (小解題辭3)
 조 쯤 다 : 좃잡다 [卜] (月釋2:17)
 취취ㅎ다 : 뽀뽀하다 [卜] (月釋2:41)
 키즈ㅎ다 : 愷悌하다 [네] (漢淸文鑑6:2)
 남죽ㅎ다 : 남직하다 [→1] (月釋1:44)
 모즈라다 : 모자라다 [卜] (訓蒙下11)
 아즐ㅎ다 : 아질아질하다 [→1] (蒙法26)
 줍줍ㅎ다 : 잠잠하다 [卜] (釋譜13:21)
 촌츄ㅎ다 : 찬찬하다 [卜] (初朴通事上34)

〈用言에서〉

가 ㅈ 기 : 가까이 [卜] (家禮解)
 막 ㅈ : 마저 [ㄱ] (楞解8:128)
 마 츄 막 : 마지막 [→1] (月釋10:8)
 막 츄 내 : 마침내 [→1] (訓正註解)
 안 ㅈ : 가장 [→1] (月釋21:38)
 줍 ㅈ : 잠자코 [卜] (月釋8:67)
 장 ㅈ : 장차 [卜] (法華6:150)
 전 ㅈ : 까닭 [卜] (釋譜6:35)
 집 ㅈ : 집짓 [→1] (朴通事上54)
 촌 ㅈ : 찬찬 [卜] (古時調)

〈修飾言에서〉

(9) ○字와의 結合

거 ㅇ 지 : 거지 [○] (漢淸文鑑5:55)
 나 ㅅ : 나홀 [一] (阿彌17)

노 올 : 노을 [一] (類合上4)

〈体言에서〉

나 ㅇ 다 : 나아가다 [卜] (類合下26)

다 ㅇ 다 : 다하다 (없애다) [卜] (月釋序17)

더 ㅇ 다 : 더으다(더하다) [一] (初杜解8:46)

오 올 다 : 울차다 (온전하다) [○] (月釋8:1)

〈用言에서〉

가ㅇ멸이 : 가멸이 [→○] (重三綱)

ㅁ ㅇ 로 : 가로(옆으로) [→○] (重杜解1:7)

〈修飾言에서〉

(10) ㅎ音과의 結合

스 ㄴ ㅎ : 사내 [卜] (杜解2:67)

아 ㅎ : 아흔 [一] (法華5:116)

아 ㅎ ㄹ : 아흐레 [一] (釋譜9:32)

〈体言에서〉

비 ㅎ 다 : 뿌리다 [一] (月釋7:22)

가만 ㅎ 다 : 가만하다 [卜] (樂範·動動)

※ ‘ㅎ다’ 接尾辭가 붙는 말은 많고 ‘卜’로 變졌으나 이 資料에서 省略했음.

〈用言에서〉

보야 ㅎ 로 : 바야흐로 [一] (杜解4:11)

〈修飾言에서〉

2. 資料의 解釋

가. ‘.’音의 變化統計(둘째 音節 以下에서)

結合→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計
變音↓												
ㅏ 音	體 言	11	4	21	11	11	10	18	37	0	1	124
	用 言	8	4	20	4	7	7	9	9	2	1	71
	修 飾 言	2	0	3	1	1	0	2	5	0	0	14
	計	21	8	44	16	19	17	29	51	2	2	209
ㅓ 音	體 言	0	5	10	12	3	3	10	7	2	2	54
	用 言	6	6	14	28	5	8	7	7	1	1	83
	修 飾 言	0	1	5	0	3	1	3	4	2	1	20
	計	6	12	29	40	11	12	20	18	5	4	157
ㅜ 音		1	0	0	0	1	5	0	0	2	0	9
ㅗ 音		2	0	1	9	1	0	2	0	0	0	15
ㅛ 音		2	0	1	2	0	0	5	4	0	0	14
ㅋ 音		3	0	0	1	0	0	0	0	0	0	4
ㆁ 音		0	0	1	2	0	0	0	0	0	0	3
ㆁ 音		0	1	3	0	0	2	0	2	0	0	8
ㅣ 音		0	0	0	0	0	0	0	0	0	0	0
ㆁ 音		0	0	1	1	0	0	0	1	0	0	3
ㅗ→ㅛ 音		0	0	0	10	0	0	0	0	0	0	10
ㄱ 音		0	0	0	0	0	0	0	1	0	0	1
	計	35	21	80	81	32	36	56	77	9	6	433

나. 分 析

(1)에서는 ‘당기다 > 당긔다 > 당기다’와 같은 變化를 보이는 말들이 나타난다.

體言에서는 거의 一母音으로 變化하지 아니하고 ㅏ母音으로 變化한다. 그 理由는 첫 音節語에서 ㄱ音과 ‘.’音이 많이 結合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생각하면 아마도 ㄱ音이 圓唇性이 강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音價 糾明에 한 열쇠가 될 것도 같다.

(2)에서는 一母音으로서의 變化가 優勢함을 보인다. ㄴ音이 有聲音이라는 사실과 舌音임을 考慮하면 意味 있는 일이다.

(3)에서는 ‘되 > ㄷ > ㄷ’變化를 보이는 말들이 많이 나타난다(ㄷ되, ㅅ되, 산되, ㄷ되다, 부되, 어되 등). 주로 ㅏ音으로 바뀐 말이 많다.

(4)에서는 ㄴ→ㄷ의 變化를 보이는 말들이 많다(마ㄹ, ㄹㄹ, ㄴㄹ, ㄷㄹ, ㄴㄹ, ㄹㄹ 등).

특히 用言의 경우는 絶對多數가 一로 바뀐 말들이다. ㄹ音이 有聲音이고 ㄴ과 더불어 舌音이라는 데 關心을 가질 만하다.

(5)에서는 一中舌母音으로 바뀌었다가 ㄷ後舌母音으로 바뀌는 語辭들이 많다.

(6)에서는 ‘비 > 비 > 비’의 變化에서 把握되어야 할 말들이 더러 보이며 ㄹ의 變化로 인한 ·音의 脫落現象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7)에서는 ‘시 > 리 > 시’/‘스 > 스 > 시’의 變化를 보이는 말들이 많다(가시, 스시나모, 가시다, 마스물다, 브스다, 성가시다, 다스마). 주로 ㄴ音으로 바뀌었다.

(8)에서는 絶對多數의 말이 ㄴ音으로 바뀌었다. ‘지 > 지 > 지’/‘치 > 지 > 치’(몬지, 움즈기다, 남죽하다, 안죽, 짐즈, 기츄, 덤치, ㄹ츄, 아츄, 누웃츄다, ㄹ츄다, 미츄다, ㄹ츄내) 過程에서 一母音으로 變換한 것 外에는 거의가 다 ㄴ로 바뀌었다. 또 漢字語에서 ‘즈’音은 모두 ‘자’로 바뀐 것도 特徵이 될 만하다.

(9)에서는 語尾變化를 例로 넣지 않았지만(同一語形의 頻度를 考慮) 이것을 包含하면 ·> 一의 變化는 가장 基本的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10)에서는 ‘하다’ 接尾辭 結付語를 意圖적으로 省略했기 때문에 그렇지(同一語形의 頻度를 考慮) ·> ㄴ 變化의 標本이 되는 語辭다.

以上에서 列擧한 사실과 統計에서처럼 들쭉 音節 以下에서 ‘·’音의 變化로 体言에서는 주로 ‘ㄴ’로 用言에서는 주로 ‘一’로 바뀌었고 ㄹ·ㄴ·ㅇ音과의 結合에서는 ‘一’音 變化가 強하며 ㄱ·ㄷ·ㄴ·ㅅ·ㅈ音 系列에서는 ‘ㄴ’音으로의 變化가 두텁하며 ‘하다’ 接尾辭 結付語에서는 하나같이 ‘ㄴ’로 바뀌었다. 특히 ㅈ音 系統의 音과 ㄴ音과의 結合이 強한 것은 關心을 가질 만한 것이며 漢字語에서나 複合語의 들쭉 意味單位·音表記 語辭에서는 거의가 ‘ㄴ’로 바뀌었다.

全体的으로 ‘·’音은 ‘ㄴ’音으로 中舌底母音化하거나 ‘一’音으로 中舌高母音化하여 ‘·’音의 不完全性を 보여 주었는데 다시 이것은 初聲에서 다른 音韻이 結付되어 ‘ㅇ > ㅇ > 이’化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變化는 ‘·’音의 消失과 더불어 一音의 動搖를 示唆해 주는 것이라 보여진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3·4C 以後에는 오늘날의 ‘一→ㄷ, 一→ㄴ’ 變化 以上으로 커다란 變化를 가져 올 것으로 豫測된다. 사실, ‘·’音이나 一音이 自生的 變化를 보이기보다 結合狀態에서의 이웃 音韻에 이끌리는 程度가 심함을 우리는 보아 왔다. 이것은 ·音의 性格과 音價를 決定하는 데 重要的 比重이 될 것이다.

3. ‘.’音의 性格

지금까지 알려진 ‘.’音에 關한 諸說로는

- └一의 間音이다 (柳僊)
- └一의 合音이다 (周時經)
- └└一└의 間音이다 (李能和)
- └└의 間音이다 (小倉進平·李崇寧)
- 閉口音의 └音이다 (朴勝彬)
- o音이다 (李克魯)
- a音이다 (崔鉉培)
- ∧母音이다 (河野六郎)
- 短母音이다 (람스데트)

등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音의 音價를 規定하는 일은 삼가고(後日로 미루고) 다만 절차상 ‘.’音이 어떤 性格의 母音인가를 덧붙여 說明해 보고자 한다

訓正解例에서

- 舌縮而聲深
-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 └舌不縮而聲淺
- └與·同而口蹙
- └與·同而口張
- └與一同而口蹙
- └與一同而口張

이라고 한, 音의 位置 提示는 가장 信賴할 만한 것으로 ·一└ 三才를 혀의 位置에서, └└└ 是 開口度의 立場에서 說明한 것은 音聲學의 卓越한 識見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舌縮이 後舌母音임을 뜻한다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단, 聲深은 舌縮을 補充說明해 주는 役割로서만 必要했던 것이 아니고 音의 性格을 深·淺·不淺의 새로운 角度에서 考察할 餘地를 보여 주는 것이 可 믿어진다. ‘└’音도 後舌母音이지만 聲深이라 하지 않고 口蹙으로 說明한 것은 ‘└└└’의 同類的 認識에서 그리 했으리라는 생각도 可能하나 其實 다른 理由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아 ·音이 陽性임에는 틀림없으나 └音보다는 陰性에 가깝고 圓脣性이 있으며, └音보다는 後舌母音이며 └音보다는 開口度가 넓으며 圓脣性이 적은, 比較的 弱한 母音인 것 같다. 그런 點에서는 一母音과 상당히 類似性을 가지고 있으며 現在 濟州島 方言에서도 들췌 音節 以下에서 ‘.’音이 消失되었다고 하나 複合語辭의 後行 ‘.’音에서 그 原形

알려진 일이다.

‘.’音의 消失期를 들켜 音節 以下에서 17C로 본 것은 國內外 學者들의 共通된 見解였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重要한 事實은 濟州島 方言이 第二音節 以下에서만 α 母音을 消失하고 있는 事實이다. 이것은 그 方言이 위에서 우리가 말한 바 第一段階의 消失을 完遂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그 方言이 第一音節에서는 例外없이 그 母音을 維持하고 있다는 事實은 그 方言이 아직 第二段階의 消失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端的으로 濟州島 方言의 現代는, 이 現象에서는, 바로 서울 方言의 16世紀에 該當되는 것이다.”⁵⁾라 하여 間接적으로 16C에 ‘.’音 消失 可能性을 暗示한, 發展的인 見解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분들이 提示한 資料들이 그 數나 質에서 不足한 것일 뿐만 아니라 濟州方言의 發達 推移를 통해 어렵듯이 類推한 것이었다.

筆者는 이번엔 濟州大學에 勤務하게 된 것을 契機로 濟州方言에서의 ‘.’音 調査와 ‘.’音의 表記 實例語를 文獻에서 調査하던 중 몇 가지 뜻있는 表記用例를 發見하게 되어 ‘.’音動搖期 내지는 消失期에 關한 再究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15C 文獻에서 ‘.’音의 混錯表記의 例를 보이면

아ㄹ/아래

- ◎ 아릿 殃報를 곧 버서 安樂호야 (月釋21:97), 아릿 물즈온더 (楞解1:30), 아릿向來 (圓覺上一之二15)
- ◎ 아랫 恩惠를 니져 브리샤 (釋譜6:4), 아래 네 어미 나를 여희여 (月釋8:86), 아래 잇디 아니흔 이를 得과라 호더니 (楞解1:29)

드록/도록

- ◎ 엇데 이제드록 (月釋21:6), 혼 劫이 남드록 닐어도 (釋譜9:10), 히못드록 沖融호물 브노라 (杜解9:7)
- ◎ 흘리대대 제도록 길다가 (月釋8:9), 더리도록 아니 앓기눅다 (釋譜6:26)

더으다/더으다

- ◎ 내이 여희는 興이 굵여 나미 더으니다 (初杜解8:46)
- ◎ 윈너커 혼덤을 더으면 (訓正註解), 益은 더을씨라 (月釋序11) 兇謀 | 날로 더을씨 (龍歌 12章)

니르다/니르다

- ◎ 後聖이 니르시니 (龍歌5章), 謂는 니를씨라 (月釋序10), 說은 니를씨라 (月釋1:15),

5) 李基文: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塔出版社, 1978, p.90~91.

부터 내려사더 (月釋1:17) 弟子드러 거샤 大乘 小乘法을 내려샤 (月釋8:90), 靈利호
 사름호 쏘 내려라 (蒙法56)

- ◎ 聖經을 니르시니 (龍歌62章), 言은 니를씨라 (訓正註解), 그르 널어 彌勒이다 하시니
 (月釋51), 禪定神通을 니르디 아니하시니 (蒙法37)

애받브다·애완브다

- ◎ 싫고 애받븐 뜨디어 (月印上)
- ◎ 손소 죽디 못하야 싫고 애완븐 뜨들 머저 (釋譜6:5), 南너릿 한아비 애완븐 ㅁ스물 바
 못 퍼도다 (杜解20:44)

더/되

- ◎ 도즈기 저신 덜 무러 (龍歌62章)
- ◎ 먼릿胡教 (月釋2:69)

가마기/가그기

- ◎ 가마기 주겨 (救急方上24)
- ◎ 가그기 브레 띄면 (救急簡易方1:77)

조스로이/조소로이

- ◎ 거스레 鎗니브레 ㅁ오로물 조스로이 너기노라 (初杜解23:11)
- ◎ 큰 지비 하다가 기울면 梁棟 ㅁ글오져 조소로이 너기리니 (初杜解18:13)

선비/선비

- ◎ 선비들 아라실씨 (龍歌80章), 날근 선비들 보시고 (龍歌82章), 선비그레 (月釋2:48)
- ◎ 世上엿 선비는 해 ㅁ뎃느니 (杜解21:13) 선비유 (訓蒙上34)

거시닐/거시닐

- ◎ 普光佛이 世界에 나거시닐 (月釋1:8), ㅁ이 맞드러 갓가비 하거시닐 (月釋2:5), 普光
 佛 減度하거시닐 (月釋1:18)
- ◎ 太子△位 다르거시닐 (龍歌101章)

기름/기름

- ◎ 모매 ㅁ기름 ㅁ르며 (釋譜6:10)
- ◎ 骨髓는 ㅁ소개 잇는 기르미라 (月釋1:13)

수스다/수스다

- ◎ 近間에 드로니 詔書ㅣ ㄴ려 都邑에서 수스느니 (初杜解17:29)

◎ 髻깃는 버리 수스낫다 (初杜解21:6)

이르다/이르다(成)

◎ 須達이 솔보티 내 어루 이르스보리이다 (釋譜6:22), 弟子 하나를 주어시든 말 드려 이르스바지이다 (釋譜6:22), 舍衛國에 도라가 精舍이르스보리니 (釋譜6:22)

◎ 이 싸해 精舍 이르스볼제도 이 개야미 이에서 살며 (釋譜6:57). 須達이 精舍 이르스고窟 밍골오 (釋帝6:38), 明帝 佛法을 더욱 恭敬하샤 城 밖과 닐굽 널 일어 중 살이시고 (月釋2:77)

기르마/기르마

◎ 기르말 밧기시니 (龍歌58章)

◎ 銀기르마로 險흔티 바라 널거시 저고라 (杜解21:22)

이밖에도 ‘노르/노로’, ‘나마내/나그내’, ‘그티/그되’, ‘받즈볼/받즈울’, ‘마마리/마그리’, ‘사눌하다/사늘하다’, ‘딜시르/딜시르’ 슌마락/슌가락. 등 더 많은 關心 있는 말들을 찾아 낼 수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그 數는 期待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나 語彙의 語形 頻度가 곧 그 時代의 言語를 代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같은 破格은 重大한 言語事實을 말하여 주는 實例들이다. 더우기 嚴正한 表記法이 지켜지던 時期의 文獻語들이므로 意味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같은 龍歌·月釋·蒙法에 ‘니르다/니르다’가 나타나는 것은 興味 있는 일이다. ㅁ中 性母音下에 陽性, 陰性이다 나타날 수 있으나 同一文獻에 一貫性이 없는 것은 ‘·’音의 動搖를 말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니르다/니르다’의 兩形의 共存을 認定하기에는 하필, ‘르/르’ 語幹未音을 가진 用言이 많은데 이것만 그리 될 理由는 없는 것이다.

‘애받브다·애왓브다’는 重要한 資料다. 이와같은 系列의 말들은 한결같이

긱브다 (圓覺下1之1:62)

골프다 (月釋21:55)

깃브다 (釋譜9:6)

낫브다 (老解下26)

뉘웃브다 (二倫14)

밧브다 (翻譯小學 10:2)

뵈왓브다 (翻譯小學10:23)

슬프다 (初杜解 25:53)

아첸브다 (永嘉下136)

알프다 (月釋2:22之1)

고돌프다 (杜解7:18)

골프다 (重內訓2:80)

낫브다 (釋譜9:5)

뉘웃브다 (6:9)

밧브다 (類合下25)

밧부다 (翻譯小學6)

뵈왓브다 (金三2:37)

어치얼브다 (釋譜 (19:7)

아첸브다 (重內訓1:13)

알프다 (杜解上40)

아꼭다 (痘瘡集要上61)	애긋브다 (朴解5:27)
어엿브다 (訓蒙下32)	에엿브다 (訓蒙下33)
에엿부다 (古時調)	어엿브다 (倭解上21)
잇브다 (三綱·江革)	일브다 (倭解上21)
저프다 (月釋序6) ⁶⁾	

로 15C 文獻에서는 母音調和 原則에 따라 表記된 것이 사실인데 이 ‘애받브나/애완브다’만은 그 原則에서 벗어난 表記다. 이 形容詞는 ‘애바티다·애와티다’動詞 語幹에 ‘브다’ 接尾辭가 붙어서 이루어진 語形인데 執筆자들은 語源을 잃어버린 狀態에서 ‘브다’를 ‘브다’로 錯覺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無意識中的 表記야말로 ‘·’音과 一音의 混同에서 온 것으로 看過할 수 없는 資料다.

애와티다: 概는 애와틸씨라 (月釋序15), 知慧人 비치 켈리 드모물 기리 애와티노라 (永嘉序14), 싸오던 싸햇 애와티는 녀시 밤바다 우느니 (杜解4:33)

애 와 톨: 이 내히 애와토틀 마장호는 고디라 (杜解1:2)

애 와 톨: 大師 | ㅎ마 가시니 기리 애와토틀미 이에 잇도다 (永嘉序14)

애와터ㅎ다: 霜露애 애와터 더욱 슬허호노라 (月釋序16)

등의 例에서 動詞 語根 ‘애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아리/아래, 드록/도록, 티/의, 가마기/가그기, 조소로이/조소로이’ 등이 兩形이 存在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며, 설령, 兩形이 存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ㅏ→ㅑ, ㅏ→ㅓ의 過程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은 ·音의 動搖에서 그 實相을 把握해야 할 것이다.

또 그 年代의 差異는 있지만 16C 初期文獻이나 後期文獻에서 ·音으로 表記되지 않아야 할 것이 오히려 ·音으로 表記된 例이나 ·音으로 表記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文獻에 따라 混亂을 가져 온 實例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마르디르다/마르디르다

◎ 關은 門의 마르디르는 남기오 (法華4:130), 扁문허리에 마르디르 남기라 (小解3:12)

◎ 너를 依藉호야 저근 울헤 마르디르코 (初杜解25:2)

거늘/거늘

◎ 니르거늘 듣느니 (杜解2:2), 違音이 잇거늘 (詩解3:15)

◎ 바르래 비 업거늘 (龍歌20章), 雪山 北에 가니 싸히 흰호고 요호 고지 하거늘(月解2:7)

기트다/기트다

◎ 子 遺는 牛맛 몸가지니도 기트니 此는 言軍中 舉無遺策也 | 라 (杜解22:22)

6) 南廣祐: 國語學論文集, 中央大出版局, 1965, p.102~103.

◎ 목숨 기트리헛가 (龍歌51章). 遺는 기틀씨라 (月釋序19)

너느/너느

◎ 너느 일은 혹 쉽거니와 (重內訓2:13)

◎ 너느 龍이 다 臣下라 (月釋1:24), 너느 나랏王이 혼날 다 아들 나흔며 (月釋2:44)

드르/드르

◎ 드르야 野 (石千27)

◎ 드르헤 龍이 싸호아 (龍歌69章)

밧ㄴ락/밧가락

◎ 이 다숫 밧ㄴ락 가진 쓸업슨 룡을 슈질하느니 (初朴通事上14)

◎ 밧가ㄴ마로 싸흔 누르시니 (釋譜6:39)

브르다/브르다

◎ 이제 親生 혼 아히 小名을 神奴라 브르고 (朴解中9)

◎ 놀애를 브르리 하티 (龍歌13章), 놀애 브르며 춤츠며 룡담하야 (月釋1:44)

서르/서르

◎ 妻子들히 드라가 서르 보내느니 (重杜解上1)

◎ 문중와로 서르 스몐디 아니홀썅 (訓正註解), 相은 서르 하논 쓰디라 (訓正註解)

시름/시름

◎ 물 害홀가 시름하논 무리 (重杜解25:2)

◎ 시름 믋숨 업스샤티 (龍歌102章)

언지/언제

◎ 언지幾時 (譯語上15), 언지 온다多咱來 (譯語補58)

◎ 언제 새어든 부터를 가 보스브러노 하디니 (釋譜6:19)

이슬/이슬

◎ 돈 이슬이 휘바다 무덤 알피 나리고 (五倫1:52), 인성이 아츰 이슬 ㄴ튼니 (五倫2:12)

◎ 露는 이스리라 (月釋序15) 이슬로露 (訓蒙上2)

후늘다/후늘다

◎ 고기 쇠리 후느는 양지라 (金三4:12)

◎ 錫杖을 후느디시니 (月釋8:77). 錫杖을 후는데 (月釋8:90)

文獻語와 實際語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常識으로 되어 있다. 15C末 文獻에 그렇

게도 正確하게 記錄된 ‘·’음이 16C 初期 中期文獻에 것처럼 문란을 보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더구나 ‘·’음이 쓰일 수 없는 곳까지 ‘·’음의 表記를 보이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이것은 ‘·’음의 消失期를 確定하는 데 重要的 資料가 됨직하다.

‘·’음은 이미 15C에 많은 動搖가 있었으나 訓練된 學者들에 依한 表記이기에 그 正確性を 誇示했던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몇몇 안 되는 破格이지만 文獻語 속에서의 이와같은 發見은 重要的 意味를 가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15C에 둘째 音節 以下에서 ‘·’음의 表記가 正確했던 것은 첫째 音節에서 ‘·’음의 實存하고 있음에서 그 類推가 可能했던 것이며, 動搖期에 있어서 劃一性 있는 表記가 記錄者들에게 重大 關心事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緣由한 것이라 보여진다. 初刊杜詩諺解는 그런 點에서 貴重한 文獻이다.

16C 初期 文獻으로 알려진 初刊朴通事나 翻譯小學 등에 나타나는 語辭들을 보이면

다 문 : 다른 저기 거르메 즈는 쓰고 (初朴通63)

비 로 : 저기 비로 잇고 (初朴通63)

도죽하다 : 너미 저지블 마마니 도죽하야 얼노라 (初朴通35)

현 의 : 아미론 현의동 몰래라 (朴通事13)

선 비 : 선비儒 (訓蒙上34)

가스면집 : 少君이 가스면 지비서 기러나 (翻譯小9:59)

다슴어미 : 다슴어미 싱선을 먹고져 하더니 (翻譯小9:24)

마 술 : 開封府 | 랫 마술 戶籍의 일흠을 여 동당 보고자 하노이다 (翻譯小9:49)

‘모든, 너나쁜, 기력, 가비야온, 남죽하다, 띠들다, 비룻다, 만드시, 너름, 도로혀다. 느즈기, 알프다, 등이다.

이런 語辭들로 미루어 보아 虛辭는 물론 用語 體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混錯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미 ‘·’음이 둘째 音節 以下에서 消失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濟州方言에서 첫 音節을 除外한 둘째 音節 以下에서 ‘·’음이 消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識見 있는 분들은 ‘·’음을 再構하는 데 그리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요즘도 濟州 出身 學者나 뜻 있는 분들에 依하여 많은 책들이 ‘·’음을 살린 채로 發刊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示唆해 주는 바가 있다. 濟州方言의 發達推移로 보아, 16·17C 李朝語와 오늘날의 狀態가 類似한 것이라 볼 때 濟州方言에 關心을 가지고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意味 있는 作業으로 여겨진다. 濟州方言式 出版物의 登場은 李朝時代에 ‘·’음의 消失以後에도 그 表記가 類推 可能함을 보여주는 좋은 證據라 할 수 있다.

7) 玄容駿·金榮敦: 韓國國碑文學大系,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Ⅱ 結 論

- (1) 첫째 音節에서의 ‘.’音 變化는 再論의 餘地가 없으므로 本稿에서는 取扱하지 않았다,
- (2) 둘째 音節 以下에서의 ‘.’音은 舌音과 齒音과의 結合이 가장 많아 (73%) 이것은 訓正 解例의 舌縮而聲深과 함께 ‘.’音의 性格 料明에 한 열쇠가 될 것이다.
- (3) 둘째 音節 以下에서 ‘.’音은 ㄱㅁㅇㅂ音과의 結合에서는 ‘一’音 變化가 強하며, ㄱㅁㅂ ㅅ 系列에서는 ‘ㅏ’音 變化가 뚜렷하다. 有聲子音과의 結合에서, 特히 ‘一’音 變化가 많은 것은 ‘.’音 變化가 結合變化임을 뒷받침해 준다.
- (4) 둘째 音節 以下에서 ‘.’音은 ㄱㅁㅂㅅㅈ과 結合하여 ㅅ(으)이 口蓋母音化傾向을 보이고 (ㄱ > ㄱ > 기, ㄷ > ㄷ > 디, ㄹ > ㄹ > 리, ㅂ > ㅂ > 비, ㅈ > ㅈ > 시, ㅆ > ㅆ > 시, ㅊ > ㅊ > 지, ㅊ > ㅊ > 치) ㅁ音과의 結合에서는 ㅅ, ㅅ, ㅅ 圓唇母音化 傾向을 보이고 있다.
- (5) 둘째 音節 以下에서의 ‘.’音은 體言에서는 주로 ‘ㅏ’(59%)로, 用言에서는 주로 ‘一’(52%)로 바뀌었으며 全體的으로 보아 ‘ㅏ’音變化(48%)가 ‘一’音變化(36%)보다 많다. 지금 까지 둘째 音節 以下에서 ‘一’音變化가 많다는 說은 修正되어야 한다.
- (6) ‘.’音은 ‘ㅏ’音보다 高母音이며 圓唇性이 있고, ‘ㅏ’보다는 開口度가 넓고 圓唇性이 적은, 母音 中에서 날숨이 가장 弱한 狀態에서 發音되는, 喉音의 發音位置와 가까운 깊은 소리다.
- (7) 語頭音에서 ‘.’音이 오지 않는 것을 母音으로서의 辨別的 獨立性이 弱한데서 비롯한 것이며, 그런 點에서는 ‘一’母音이 語頭音에서의 用例가 적은 것과 관련하여 示唆해 주는 바가 있다.
- (8) ‘一’母音은 16C 末부터 크게 動搖되기 始作하여 前舌·後舌母音化하는 傾向이 뚜렷하며 앞으로 더 많은 音韻變化가 豫想된다.
- (9) 둘째 音節 以下에서의 ‘.’音의 動搖는 本論에서 詳述한 바와 같이 15C에 強하게 나타났으며 16C 中葉에 이미 音價의 消失을 가져왔다.
- (10) ‘.’音의 音價에 斷定을 後日로 미루며 濟州方言을 中心으로 한 資文의 發掘은 繼續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企錫得：消失文字(Graphemes)攷，人文科學13，1965。
 金永松：舌縮의 本質，金鍾雨華紀論，1977。
 南廣祐：補訂 古語辭典，一潮閣，1977。
 南廣祐：國語學論文集，中央大學校 出版局，1962。
 南廣祐：圓脣母音化 現象에 關한 研究，國語學 2，1974。
 朴基采：古代國語의 研究，音韻篇，高大 出版部，1973。
 方鍾鉉：·와 △에 대하여，한글 8-6，1941。
 徐廷範：「現實音의 國語史的 研究」，汎友社，1975。
 成元慶：漢字韻으로 본 ·音價의 再攷，國文學論集(檀大)，1972。
 李克魯：音價를 밝힘，한글9-1，1941。
 李基文：十六世紀 國語의 研究，塔出版社，1978。
 李基文：國語音韻史 研究，韓國文化研究叢書，1972。
 李崇寧：國語音韻論 研究 第一集 「·」音攷，乙酉文化社，1955。
 李崇寧：/· /音의 消失期推定에 대하여 學術院論文集 16，1977。
 李崇寧：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塔出版社，1978。
 최현배：·字의 소리값 詳考，東方學志4，1959。
 玄平孝：濟州島方言 “·”音 小考，梁柱東博士 華紀論文集，東國大學校，1963)

— Summary —

The Research on Cases of Confusion of the
Phonemic Symbol “ . ”

Uo-yung Lee

1. Cases of confusion in the usage of the phonemic symbol “ . ” are often found in the literature published in the 15th century.
2. A great change in the phonemic symbol appeared in the 15th century and vanished in the 16th century.
3. The phonemic symbol of the “ . ” was chiefly transformed to the phonemic symbol “ ㅈ ” by combining “ ㅈ ” with the audible consonants.
4. The phonemic symbol of the “ . ” has been frequently changed to the phonemic symbol “ ㅈ ” among nouns and to the phonemic symbol “ — ” in verbs.
5. Generally, however, the phonemic symbol of the “ . ” has been changed to the phonemic symbol “ ㅈ ” rather than to the phonemic symbol “ — ”.